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56802

2012년 2월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전공)학위논문

실천적 추론 수업을 통해 본 다문화 이해와 배려 의식 고양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 · 가정교육전공

이 세 연

실천적 추론 수업을 통해 본 다문화 이해와 배려 의식 고양

Understanding of Multiple Cultures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of consideration through the practical reasoning class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 · 가정교육전공

이 세 연

실천적 추론 수업을 통해 본 다문화 이해와 배려 의식 고양

指導敎授　양 남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 · 가정교육전공

이　세　연

이세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옥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경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양남희 인

2011년 11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가. 연구 목적 및 의의 ····· 1

Ⅱ. 이론적 배경 ····· 4
가. 다문화의 이해 ····· 4
1. 다문화가족의 출현과 정의 ····· 4
2. 다문화교육의 정의 ····· 6
3. 가정 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 8
4.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고찰 ····· 10
나. 배려의 이해 ····· 12
1. 배려의 의미 ····· 12
2. 배려 관련 연구 고찰 ····· 14
다. 실천적 추론 수업의 이해 ····· 17
1. 실천적 추론 수업의 의의 ····· 17
2. 실천적 추론 수업 관련 연구 고찰 ····· 19

Ⅲ. 연구 방법 ····· 21
가.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 21
나. 조사 도구 ····· 21
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 22
1. 설문지의 타당도 ····· 22
2. 설문지의 신뢰도 ····· 23
라. 조사 절차 및 자료 처리 ····· 24
마. 연구의 한계점 ····· 24

Ⅳ. 연구 결과 ····· 25
가. 실천적 추론 수업 지도안 ····· 25
나. 실천적 추론 수업 적용 결과 ····· 29
1.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정도 ····· 29
2. 실천적 추론 수업 적용 후 사전 · 사후 효과 ····· 36

Ⅴ. 결론 및 제언 ····· 38
가. 결론 ····· 38
나. 제언 ····· 42

[참고문헌] ····· 43
[부록] ····· 46

표 목 차

<표 Ⅱ-1>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모형 각 요소
<표 Ⅲ-1>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 관련 문항의 인자적재행렬
<표 Ⅲ-2>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 척도의 신뢰도
<표 Ⅳ-1> 실천적 추론 수업 지도안
<표 Ⅳ-2>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표 Ⅳ-3>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
<표 Ⅳ-4> 다문화교육의 시작 시기
<표 Ⅳ-5>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 및 경험 경로
<표 Ⅳ-6> 다문화교육에 적절한 교과목
<표 Ⅳ-7> 기술 · 가정 교과 내 다문화 교육내용의 필요성
<표 Ⅳ-8> 기술 · 가정 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 방법
<표 Ⅳ-9> 다문화이해를 위한 수업양의 적절성
<표 Ⅳ-10>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의 하위요인 사전 · 사후검사 차이 비교

ABSTRACT

Understanding of Multiple Cultures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of consideration through the practical reasoning class

Se-yeon, Lee
Advisor : Nam-hee, Yang
Technical Skill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hanges in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and consideration through practical reasoning, targeting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e purpose, 210 students in the first grade of W Middle School, Gwangsan-gu, Gwangju city were interviewed with uses of a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4 to 28, 2011. A total of 204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final test except those whose responses were insincere or unreliabl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sed according to purposes of the analyses with the following instruments: With a use of SPSS 18.0, a frequency test, a cross-tabulation analysis(Pearson's χ^2, Fisher's exact test), an independent t-test, a corresponding t-test, analysis of covariance, and a Friedman test were carried and they were carri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α=0.05.
Based on the results above, suggestions and educational meaning of changes in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and consider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wareness of multiculture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city increased after the program.

Second,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it was discovered that most of the subjects responded affirmatively, especially, in technical skill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After the program, most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is necessary within the subject of technical skill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In considering that they responded that it is a practical subject which can help them to solve real

problems, it was confirm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chnical skill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is necessary.

In respect to proper education method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ost of them responded that programs using media such as video and photos are most proper, followed by group learning and self-study based on presentation by teachers. Therefore, as all of them are included in practical reasoning program, they are considered as a prope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differences in awareness on multiculture, preference and sub-factors of consideration needed to understand multiculture, the means of post-test were high in acceptance of, attitude to and interest in multiculture. It indicate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practical reasoning program is helpful.

In considering that the means of the post-test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pre-test, it was discovered that they real pre-they should have attitudes to consider multiculture to understand it.

There were little difference in measur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ternal imag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t means that preference of students will not be changed with a single session of education.

Fourth, as a result of identifying understanding multiculture after the group learning through a practical reasoning program, most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it was very helpful. It means that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change students' awareness on multicultur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the practical reasoning program has a great meaning in that it contributed to expand the area of value beyond teaching knowledge to studen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to enhance effica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Ⅰ.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의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인간 삶의 모습 또한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삶의 양보다는 질을 지향하고 자기 존중감을 중시하는 등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1990년대 말 이후부터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중소규모 산업 현장 및 3D업종의 기피현상이 나타나 외국인 산업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단기체류자 포함)은 1,158,866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체류 외국인의 수가 750,87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5배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 외국인 비율이 2010년에 2.8%, 2020년에 5%, 2050년에 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았다. 이런 흐름으로 비추어볼 때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구성비는 인구 10명당 1명가량이 외국인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2010).

또한, 201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외국인과의 혼인 통계 결과에 의하면 총 34,235건으로 2000년 11,605건보다 3배 정도 증가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수가 2006년 25,000명, 2007년 44,000명, 2008년 58,000명, 2009년 107,689명, 2011년 151,15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령 분포별로 보면 만 6세 이하가 64,040명,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 7~12세에 28,922명, 중학교 취학 연령 만 13~15세에 8,082명, 고등학교 취학 연령 만 16~18세에 6,645명인 것으로 나타나서 아직은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 이하의 어린 자녀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는 곧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식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예부터 단일민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이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인간성 지향 교육보다는 성적위주의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에 시달려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아이들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보다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과 다른 대상에 대하여 공격적이며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설재종(2004)은 요즘 아동들의 행동 실태는 집단 따돌림을 비롯하여 이기적인 표현양상, 부족한 봉사 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욕설, 부모의 말에 불복종, 학교 및 사회 규칙 위반, 사회에 대한 '사랑'의 정서 부족, 친구 간의 우정 결핍 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호정(2009)은 아동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업 부진, 실패했을 때 겪는 자존감 상실과 부모의 부정적 피드백과 정서적 돌봄의 결핍으로 인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 어려우며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함양하기 어렵고 또한 감사 성향도 낮을 수밖에 없다(조항석, 2010).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을 탐색하는 시기로 자신의 외모, 성격, 행동, 역할 등을 인식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청소년기에 느끼는 자아정체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대부분이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데 개인, 심리적 소외감, 학교, 가족, 친구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따돌림의 원인이 자신의 부모, 피부색, 외모와 같이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 더 문제가 되고 있다(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2010).

한국 대부분의 청소년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여기는 차별의식이 그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만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들을 향한 고정관념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면 한국인이라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청소년기에 친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크게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교생활 속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07)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범 교과가 접근해야 할 주제로 강조하였고, 기술· 가정 교과의 가정 영역에서는 저출산 · 고령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 이해 교육"과 "국제 이해 교육"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국가 ·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자주적 생활 능력을 키우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사회과, 도덕과의 경우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기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연구(최선화, 2010; 남미영, 2009; 2010, 나혜미; 2009, 이은정)가 있으나 가정 교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김서현, 윤영, 2011).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학교에서부터 다문화가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 추론 학습법에 따른 다문화교육을 한다.

둘째, 사전 · 사후 검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배려에 대한 변화 정도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하도록 본 연구가 기술·가정과의 다문화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이론적 배경

가. 다문화의 이해

1. 다문화가족의 출현과 정의

전 세계에서 단일민족국가로 자처해 온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화교라 불리는 중국 이민자들을 포함해 한국 사회에 이전부터 뿌리내리고 살아온 외국인들이 있었지만, 과거 한국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한국은 소수민족들을 더 이상 주류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2007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매일신문 2008년 2월 19일 자). 이에 부응하여 최근 정부 부처, 지역사회 그리고 대중매체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다.

다문화가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거시적으로 전쟁이나 이념대립으로 말미암아 피난, 망명, 국제적 고용환경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이주 등이 있다. 미시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소득이 더 높고 안정적인 국가로 이주하여 교육 및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요인이 작용한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나 탈북자의 경우는 전자에, 국제결혼이주민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원진숙, 김정원, 이인재, 남호엽, 박상철, 김광수, 류재만, 2010).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으로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끼리 결합한 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 문화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4년 4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가족, 혼혈인 가족 등 차별성을 지닌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였다.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우리와 다른 민족적 ·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대상으로는 국제결혼가족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박경민, 2009 재인용).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한다. 반면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정이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탈북자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법은 현실적 지원을 위해서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남윤주, 2009).

2008년에 제정되었고 2011년 부분 개정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둘째,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2. 다문화교육의 정의

다문화교육은 최근 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쳐 그 교육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교육이란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과 사회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개념으로, 개인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문화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집단과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국가, 종교, 계층, 성별, 사회 역사적 배경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집단이 공존하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뿐 아니라 상대 문화집단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개념인 것이다(김상돈, 2010).

다문화교육은 1920년대 후반에는 미국 이민자들의 민족적인 배경과 문화적 공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라는 간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으로 사용되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소수 민족의 자아정체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민족연구(Ethnic Stud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특별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다민족교육(multiethnic education)이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진정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 사용되었다(장영희, 1997; 최윤영, 2007).

다문화교육을 미국의 교사교육공인협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ion of Teacher Education : NCATE)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각 개인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다양성을 존중, 자각하는 데 있다. 둘째, 교육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 인종, 종교, 문화집단 간의 상호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다(김선미, 2000; 노석봉, 2010 재인용).

대표적인 다문화교육 학자인 Banks(1993)는 다문화교육이란 커리큘럼과 교육제도의 재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혁 운동으로 다양한 성별, 언어, 사회계층, 인종, 인종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세 가지 주요 요소로서는 첫째,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혁 운동이며 둘째, 동등성, 정당성, 인권과 같은 민주주의 이상을 실천하는 목적을 가지며 셋째, 민주주의의 이상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 항상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끝나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이다(김선미, 김영순, 2008 재인용).

김영옥(2000)은 Nieto(1992)의 분류를 정리하여 다문화교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반 인종 편견교육으로 차별적인 습관과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며, 공평과 평등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킨다. 둘째, 기초교육으로 다문화와 세계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셋째, 모든 아동에게 중요한 교육으로 자신의 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며, 다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과정은 '잘못된 교육'이다. 넷째, 널리 미치는 영향력으로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 골고루 퍼져있으며, 다문화에 중점을 두어 통합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 과정도 적절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다섯째, 사회 정의적 교육으로 사회의 공평과 평등의 발달을 촉진한다. 다문화에 초점으로 두어 설계된 수업 경험은 사회적 상황을 탐구해보고 부당한 사건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하나의 과정으로 태도와 가치를 경험하고 명료화시키는 과정이다.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현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필수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경험이다(박여울, 2010).

다문화교육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다양한 입장을 바탕으로 학교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구분하고 있다. 광의의 의미에서 학교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학생들이 평등한 성취 기회를 갖도록 교육의 구조를 바꾸려는 생각과 개혁 운동 및 그 과정을 뜻한다. 협의 의미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의미한다(조영달, 2008).

다문화교육을 '공통 교육'이란 개념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통 교육이 각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은 물론,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나 성, 학업능력, 장애 유무 등에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및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 교육이 요구되며 다문화교육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황규호 외, 2008; 김상돈, 2010).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주요 개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다양성을 존중(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국가, 종교, 계층, 인종, 경제 등이 상호 연결된 것을 인식하고 상대 문화 집단들과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셋째, 다양한 국가, 인종, 사회계층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나아가 민주주의 이상인 동등성, 정당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3. 가정 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부터 각 교과에 국제이해, 다문화, 국제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으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학년도 다문화 교육정책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였고 더 나아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을 범교과 주제로 채택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과정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주의를 토대로 한 다문화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수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의 영역과 요소를 구성하게 된다. 이제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의 다양성을 참작할 수 있는 시민성 교육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가정 교과 교육의 목표는 “자주적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이며, 세부적으로는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개인 생활을 영위하고 기술의 세계에 대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는 가정 교과교육을 통해 개인이 속한 나라와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0, 김은정).

또한 가정 교과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국어, 사회, 도덕 교과 등에서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 이상으로 실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실천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 교과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방향과 가정과 교육이 추구하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이 일치한다.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항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할만한 근거를 기초로 판단하고 이성적인 행동에 이르게 하는 교육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가정과 교육이 추구하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과 부합한다. 최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사회 현상을 파악하여 가정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11, 김서현, 윤영).

이는 기술 · 가정과 2007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내용 중 하나인 '학생이 직면하는 생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체험 중심 학습과 실천적 추론 학습을 강조하였다.' 에 잘 나타나 있다. 가정생활과 관련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체험 중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주)금성출판사, (주)교학사, 원교재사, (주)삼화출판사, 천재교육, 삼양미디어, (주)지학사, (주)미래엔컬처그룹, (주)교학사, 두산동아, 상문연구사 총 11종이 있다. 이 중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는 (주)금성출판사, (주)교학사, 원교재사 이렇게 3종이 있다. 나머지는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11종의 교과서 중 3종의 교과서에만 다문화관련 내용이 있음에도 1학년 교과서를 토대로 연구한 이유는 다문화교육은 빠를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가설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내용분석은 3종의 교과서 안에 있는 본문 내용, 읽을거리, 그림, 단원관련 실습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관련 내용은 있으나 그 양이 너무 미비하였고 원교재사를 제외한 교과서들은 모두 지식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려의식 향상 및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태도를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4.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고찰

서범석(2010)은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탐색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저항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위주의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확대 · 발전되어야 하고, 다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제 확립과 인적 · 물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도 밝혔다. 다문화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외국의 다문화주의 수용을 넘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서구 사회와 다른 이주민의 특성이 있고, 아직 인종·민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정 인종 및 민족이 대규모 집단을 형성하지도 않아 그 방향 정립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넓고 어떤 선택이든 실행 가능성이 높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학계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그 결과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남정희(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 자신이 인식하는 학교생활 적응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자신의 성별, 다문화가정 아동 부모의 국적, 다문화가정 아동의 형제관계에 따른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수업과 학습태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 등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교사의 성별, 교사의 경력,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기간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성별, 경력,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기간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일반적 배경보다는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이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하며 또래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성희(2010)는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교육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다인종의 존중, 다문화에 대한 신념, 다문화 지식 수용태도, 다문화의 인정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다문화가족교육은 다문화사

회의 건설을 위해 정의와 자유에 기반을 두고, 상호 이해와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에 강한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다문화가족교육 중점 내용으로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다루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교육 실시 방법은 모든 교과의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 기술 · 가정과,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외국어과 순으로 나타났다.

박여울(2010)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중학교 가정 교과수업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울시 중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타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다문화교육 수업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중학교 가정 교과 단원에 다문화교육을 적용하여 문화적인 공존을 위한 새로운 가정 교과 수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중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다문화 인식을 나타냈으며, 특히 여학생의 다문화 인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다른 인종에 비해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지만, 흑인에 대해서는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지저분하다고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인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또한 여학생들이 더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수업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은 향후 다문화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해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나. 배려의 이해

1. 배려의 의미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교육 전통에서 볼 때 '보살핌'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애 정신, 그리고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보살핌의 교육 정신이다. 부드러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세심한 돌봄 또한 자신의 안정에 대한 강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배려의 의미를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의한 사람으로 메이어옵(Milton Mayeroff)을 들 수 있다. 메이어옵은 배려를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전형적인 예로 아버지의 자식, 교사의 학생, 의사의 환자,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려를 들고 있다. 단순히 관심을 갖거나 배려해 주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은 배려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메이어옵은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봄으로써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2002, 박병춘 재인용).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배려라는 말을 윤리적 의미보다는 존재론적으로 부각시킨 사람이다. 배려란 인간존재인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 가능 때문에 또는 그러한 존재 가능을 위하여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틴 부버(M. Buber)는 배려라는 말과 관련해서 나와 너의 진정한 만남의 관계에서 나온 타인을 감싸 안는 마음, 즉 포함이라고 하였다. 막스 쉘러(M. Scheler)는 진정한 동감이라 불렀다. 파커(Parker)는 배려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배려를 최초로 윤리 영역으로 가져온 길리건은 배려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의하기보다는 정의 도덕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길리건은 인간관계, 책임, 상호 의존성, 유대, 애착, 동정심, 사랑을 중요시하는 여성적 도덕성을 배려 윤리로 정의하였다.

배려의 의미는 유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맹자에 의하면 인간은 사단이라는 도덕적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측은해하는 마음 상태에 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단을 위축, 왜곡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완성하면 도덕성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은지심은 동정심이라 할 수 있으며 나딩스가 주장한 배려의 개념과 유사하다(손병주, 2011 재인용).

Noddings는 배려란, 보살피는 태도와 마음 또는 보살피려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배려는 덕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Noddings는 이렇게 대답한다. 배려는 관계를 가리키고, 덕은 개인의 속성을 가리킨다. 자기 혼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교호적인 혹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 개인의 속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덕이고,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배려 관계라고 Noddings는 구별한다.

Noddings의 배려를 보완하는 견해로는 C. Gould의 배려가 있다. Gould는 배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양호적(養護的) 의미에서의 배려이다. 이는 비상호적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관계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배려하는 관계는 아니다. 비록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자기 반응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고 가르치고 책임을 진다. 이런 비상호적 관계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서도 볼 수 있다. 양호로서 배려의 관계는 지배, 착취의 악의적인 비상호성과 대조되는 자애로운 경우이다. 둘째, 사랑 혹은 친한 사적 관계에서 배려의 개념이다. 이는 서로의 개체성과 서로의 욕구에 대한 존중을 상호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타적 행동에 의해 서로가 키워 가는 것이다. 상호 공감과 이해의 관계 혹은 타인에 대한 관심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셋째, 가족을 공통 관심과 공동선의 모델로서 보는 것으로 구성원 모두를 상호 연결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에 나타나는 상호 간에 대한 배려에 추가되는 점은 가족의 복지에 대한 공통 이해이다. 이러한 공통적 이해관계는 개인으로서 서로에 대하여 갖는 배려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혈연관계에 의한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 목적을 향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협력적 상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1997,김복용 재인용).

또한 배려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감정이나 동기가 발생하여 관심과 주의,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하게 또는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 타인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두는 것, 타인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 가족이나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이익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려는 의지의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배려는 다양한 인간관계 즉, 수직·수평관계, 개인·집단에 대해서 발휘된다(2004, 민태옥).

학생들이 다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배려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을 때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배려 관련 연구 고찰

김복용(1997)의 배려 윤리의 교육적 의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지나치게 인지적 측면에 집중됨으로써 정서나 감정의 문제와 같은 정의적 측면에 상당히 소홀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기회의 부여에도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지나친 언어화 · 추상화의 경향으로 도덕 생활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노딩스가 제기하는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와 교육의 방법들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이론적 근거와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도덕성의 성차와 관련하여 1)본래 우리 인간이 타인을 따뜻이 배려해 주고 배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2)관계와 반응에 근거한 도덕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3)모든 교사가 학생에게 배려와 모범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4)동시에 다양한 실천 기회들을 부여해 주고 학생들을 그들이 지니고 있는 최상의 동기들로 이끌어 줄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과 교육 행정가는 5)학교제도와 구조 개선을 배려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논의는 우리의 도덕성 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민태옥(2004)은 배려 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피 배척 아동의 자기 존중감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첫째 자기 존중감 검사 결과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 관계 검사 결과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의 하위요인 중 ‘신뢰감’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존중감’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려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참가자별로 느낀 점과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록한

진술을 분석해 본 결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더 두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할 기회가 되었고, 친구들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또한, 칭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성원 간에 친밀감을 갖게 되면서 집단 내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본다고 하였다.

박미정(2009)은 가정과 교육에서의 행복과 배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한 연구에서 ADDIE모형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다.'라는 목표 아래 7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행복'과 '배려'라는 큰 맥락 안에서 '자아정체감 형성', '타인에 대한 배려',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의 세 가지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행복과 배려를 위한 가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의 긍정적 사고 및 타인에 대한 배려, 행복감 강화에 영향을 주어 가족의 행복과 건강성 회복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생의 미래 가정생활과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행복하고 배려할 줄 아는 개인과 가족의 형성으로 행복한 사회,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손병주(2011)는 배려 윤리 관점에서의 중등 도덕 교과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다. 배려 윤리 관점에서 개정 중등 도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중등 도덕 교과 수업에서 배려윤리를 인지하고 이를 자신의 마음속에 가치화시켜서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수업 모형은 내러티브 접근법, 본보기, 봉사 활동 등 세 가지로 구안되었다. 내러티브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배려 윤리와 관련된 도덕적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본보기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배려 윤리의 모범적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사례들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게 한다. 봉사 활동 수업 모형은 나딩스의 도덕 교육론에서 강조한 실천을 가장 적절히 체험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다. 이 세 가지 수업 모형을 중학교 도덕 교과 수업에서 적용해 본 결과, 내러티브 수업 모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감성을 느끼게 하였고, 자아와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상호 유대성, 따뜻한 관심 등 배려의 도덕성을 가치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본보기 수업 모형은 나딩스의 주장처럼 학생들에게 배려하라는 가르침 대신 어떻게 배려하는지 본보기의 모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마음

속에 배려 윤리가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봉사 활동 수업 모형은 학생들에게 인간의 상호 의존성과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실천하게 하였고, 봉사 활동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 실천적 추론 수업의 이해

1. 실천적 추론 수업의 의의

현대에서 ‘실천적(practical)’이라는 단어가 ‘당면한’ 혹은 ‘편의적 사용’이라는 일상적 언어의 의미로 주로 풀이하여 현재 가정학과 가정교육학이 지향하는 바에 이런 의미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실천’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raxis'란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로 ’practice'라고 사용되는데 이 말은 일상어에서 기술적 능란함을 뜻하기도 한다. ‘Praxis'라는 말은 삶의 객관적 상황(실제)과 주체적 행동(실천)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데 현대 철학의 일반적인 경향은 주체의 의식적 행동을 강조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홍윤기, 이정원, 1982; 유태명, 2006).

Brown(1980)은 실천적 추론이란 어떤 순서나 정해진 차례에 의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무엇이 위기이며,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왜곡된 믿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원인 등은 무엇인가? 이것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다른 바람직한 믿음은 무엇인가?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등의 실천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질문과 토의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사고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알맞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하며 결정한 대안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행동의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하고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매일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사고력이 필요한데 이를 실천적 추론이라고 한다(채정현, 1997).

학습자의 경험과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중시하며, 급변하는 가정생활과 산업 기술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실천 교과인 기술 · 가정 교과에서 이론 위주의 학습보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천적인 문제를 학생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천적 추론을 통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행동하고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협동성, 도덕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추론 수업을 적용한 학습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실천적 추론 도구는 조별 토의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며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행동 방향을 추구하는 질문을 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가치 판단을 기르는 과정을 거친다.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모형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요구된다.

<표 Ⅱ-1>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모형 각 요소

기대하는 목표 세우기	· 목표는 무엇인가? · 이상적인 상황이나 결과는 무엇인가? · 무엇이 행해져야 할까? · 무엇을 행하는 것이 정당할까?
문제의 맥락 이해	· 가족과 사회 안에서 문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 어떤 사람들이 관련되었는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고려해야 할까? · 그 정보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 어떤 질문을 물어야 할까?
바람직한 대안 탐색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들은 무엇일까? ·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행동 결과 고려	·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가능한 해결책으로 행동했을 때 각각의 행동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 그런 파급 효과가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지역 사회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유태명, 장혜경, 김주연, 김항아, 김효순, 2004)

이러한 실천적 추론 수업은 가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배려의 태도를 기르는데 핵심적인 교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실천적 추론 수업은 가정교과를 가정이나 사회에 퍼져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교과, 가정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교과, 가족끼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교과, 남녀 모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교과로 인식하게 하는 수업방식임이 입증되었다(2007, 채정현, 유태명, 박미정).

실천적 추론 학습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정과 교사들은 실천적 추론 학습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배려의 마음을 기르고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추론 수업을 하려고 한다. 수업 전, 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본 후 실천적 추론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실천적 추론 수업 관련 연구 고찰

유태명(2006)은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연구를 하였다.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은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가정과교육의 철학, 이 시대의 교육과정 이론, 이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길러야하는 역량 등을 감안하면 그 시대적 요청과 당위성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제 7차 가정과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의 과정을 직시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과 미래의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우리는 협동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과정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영미(2003)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하였다. 남자고등학교 1개교의 고등학교 1학년 4개 반을 각각 2개 반씩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집단은 실천적 추론수업을, 문제 집단은 강의식 수업을 시행한 후 문제 해결 능력의 변화량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정환경과 학교의 심리적 환경 중에서 부모와의 대화가 많고 가족 분위기가 좋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에 효과적이며 부모와의 대화정도가 많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 변화량이 향상되었다고 했다. 둘째,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은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강의식 수업보다 문제 해결 능력 변화량

이 크게 향상되어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문제 해결 능력 하수준의 학생들이 상수준의 학생들보다 실천적 추론 수업을 받은 후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넷째, 문제 해결 능력의 변화량에 미치는 변인을 보면 수업 방법이 문제해결능력 변화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박수경(2009)은 개정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부모됨과 출산·육아' 단원에서 '부모됨'에 대한 수업 내용을 기존의 11종 교과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추출한 수업 목표를 가지고 '부모됨' 인식과 가치관 변화를 위한 실천적 추론 수업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실제로 교실 수업에 실행하여 실천적 추론 수업 방식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평가를 살펴보니 수업에 흥미가 있어 수업에 대한 참여가 촉진되며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수업에 만족을 주어 그들의 부모 됨에 대한 수업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인식 향상과 부모됨의 준비에 대한 인식 향상 면에서 실천적 추론 수업 방식으로 수업한 실험 집단은 수업 후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고등학생 대상의 부모됨 교육의 가치관 향상과 부모됨 따른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은 학습자가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인 실천적 추론 수업 과정이 적절하여 보인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가정과에서 실천적 추론 교수 학습법과 관련된 연구는 이현미(1998)의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여고생들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변현진(1999)의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 가족 관계와 자원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문성희(2000)의 식생활 단원에 적용한 실천적 추론 수업이 여고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가정과에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실천적 추론 학습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술 · 가정 교과의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를 위해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추론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실제 교실 수업에 적용한 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조사 도구,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조사 절차 및 자료 처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W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 · 여 중학생 210명을 표집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배부 및 수집은 2011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된 자료는 자료검색과정을 거쳐 분석 대상에서 6명을 제외하고 총 20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설문지로 성인 남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박선미, 201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오진숙, 2009),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교육에 대한 인식(김성희, 2010) 등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수업 전 설문지의 설문 문항은 성별, 다문화에 대한 인식 2문항,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의 기술에 관한 2문항, 다문화에 관해 11문항(수용도 및 태도 6문항, 관심도 3문항, 대책 2문항),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호감도 6문항(내적 이미지 3문항, 외적 이미지 3문항), 배려의 마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 후 설문지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4문항,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관한 11문항,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호감도 6문항, 배려의 마음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설문지의 타당도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가설적 개념(construct)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인자 타당도(factorial validity)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증명하는 구성타당도의 형태(Allen & Yan, 1979)이므로 참여 동기에 관련된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Ⅲ-1>는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성분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직교회전방법으로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인자적재 계수가 0.5 이하인 문항은 제외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들에 의해 65.076% 설명되어지고 있다. 호감도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들에 의해 75.728% 설명되어지고 있다. 또한 배려 관련 문항은 1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여지며, 배려척도는 1개의 하위요인에 의해 56.449% 설명되어지고 있다.

<표 Ⅲ-1>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 관련 문항의 인자적재행렬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문항 번호	요인1
인식6	**0.794**	0.246	-0.003	호감도3	**0.842**	-0.019	배려3	**0.791**
인식2	**0.722**	-0.104	0.443					
인식1	**0.714**	0.136	0.227	호감도1	**0.837**	0.316	배려4	**0.773**
인식5	**0.658**	0.377	-0.248					
인식3	**0.599**	-0.107	0.541	호감도2	**0.829**	0.291	배려1	**0.769**
인식4	**0.539**	0.291	0.267				배려2	**0.769**
인식9	0.082	**0.845**	0.180	호감도6	0.041	**0.887**		
인식7	0.243	**0.814**	0.043				배려6	**0.739**
인식8	0.127	**0.757**	0.313	호감도5	0.191	**0.872**	배려5	**0.728**
인식11	0.084	0.219	**0.779**	호감도4	0.450	**0.688**		
인식10	0.158	0.313	**0.683**				배려7	**0.685**
고유값	2.857	2.422	1.879	고유값	2.338	2.205	고유값	3.951
설명력	25.974	22.022	17.081	설명력	38.970	36.758	설명력	56.449
누적 분산	25.974	47.995	65.076	누적 분산	38.970	75.728	누적 분산	56.449

2. 설문지의 신뢰도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안정성(s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과 관계가 있으며, 조작된 정의나 지표가 측정의 대상을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신뢰도는 연구방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인지적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는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오차를 유발 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신뢰도 측정 방법은 문항 내적 일관성(item 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 α 검정방법을 이용하였다.

<표 Ⅲ-2>는 신뢰도 검증결과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에 관련된 측정문항의 각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모두 0.6이상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태도	6	1, 2, 3, 4, 5, 6	0.809
	다문화에 대한 관심	3	7, 8, 9	0.829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	2	10, 11	0.687
	전체	11		0.841
호감도	내적 이미지	3	1, 2, 3	0.827
	외적 이미지	3	4, 5, 6	0.811
	전체	6		0.828
배려	배려	7	1, 2, 3, 4, 5, 6, 7	0.866

라. 조사 절차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조사 절차는 먼저 구체적인 연구 절차 계획을 설계한 다음,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는 본 연구자가 표본으로 추출된 중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된 자료는 자료검색과정을 거쳐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가능한 자료는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Pearson's χ^2, Fisher의 exact test), 독립 t-test, 대응 t-test, 공분산분석, Friedm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α=0.05에서 실시하였다.

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집 대상을 광주광역시 W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과에 속한 기술 · 가정을 수업 받는 중1 ~ 중3까지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점과, 지역선정 또한 1군데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번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Ⅳ. 연구 결과

가. <표 Ⅳ-1> 실천적 추론 수업 지도안

본시 주제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시	2차시
학습 목표	1.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교 사	학 생
도입 (7분)	* 학습 분위기 조성	· 출석 확인, 분위기조성	· 학습할 자세를 갖춘다.
	▶전시 학습 상기 및 확인	· 번개를 통해 전시학습을 간단히 확인한다.	· 지명 받은 분단은 짧게 대답한다. * **번개** - 강하고 짧게 치는 번개처럼 기억에 남는 단어를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협동학습 방법
		· 학생의 답변을 통해 전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준다.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한다.
	* 학습 범위 제시	· 교과서 36쪽 제시	· 교과서 해당 쪽을 편다.
	▶**생각 열기**	· 조별로 학생들을 옆 빈 공간으로 나오게 한 후 원을 만들게 한다. 조원들이 만든 둥근 원을 한 명씩 빠져나오게 한다. - 혼자만 원 안에 있을 때 느낌이 어떠했는가? - 원 안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조원들의 제지로 나오지 못했을 때 느낌은 어땠는가? · 신문지를 접어가며 조별로 마지막까지 남는 게임을 한다. -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게임에 도움이 되었는가?	· 활동을 한 후 개인별 생각을 적어보고, 개인의 생각을 토대로 조별로 토의 해 본다.

지도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교 사	학 생
전개 (33분)	* 학습 목표 제시	· 학생의 대답을 본시 수업내용과 연결하여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 전체가 낭독하도록 지시한다.	· 교사가 제시한 학습 목표를 낭독하고 인식한다.
	▶ 문제인식 및 배경이해	· 공익광고를 보여주고 우리 생활에서 배려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한다.	· 광고를 본 후 배려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활동지 질문에 답한다.
	* 전체학습 및 조별 토의	· 다문화가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고 다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아리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 보자. -윤서는 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 -위와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드라마를 보고 개인별 생각을 적어본 후 손을 들어 표현한다.
	* 조별 발표 및 정리	· 조별로 각 조원들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 조별로 발표자를 정해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다.
		· 조별 토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조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 다른 조의 발표를 듣고 우리 조와 다르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을 기록 해 본다.
	▶ 대안의 탐색	· 대중매체나 주변의 경험 등 우리 주변에 숨겨진 고정관념을 찾아 내보도록 지시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듣고 활동지에 답을 기록 해 본다.

지도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교 사	학 생
전개 (33분)	▶ 생각 넓히기	· 조별로 찾아낸 고정관념의 사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다문화 가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 토의한 내용에 대해 조별로 발표하도록 지시한다. ·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중 보충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 하도록 한다. ·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학생들이 찾아 역할극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적어보도록 지시한다.	· 해결해야할 과제를 확인한 후 조원들과 함께 토의하여 다문화 가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안을 찾은 후 조별로 발표한다. · 조별 발표 내용을 듣고, 자신이 속한 조에서 조사한 내용보다 추가된 점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역할극을 수정해 보고 수정한 내용을 발표한다. · 조별 발표 내용을 듣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하여 보충 내용을 인지하도록 한다. · 활동지에 질문에 대한 실천 가능한 답을 기록해본다.
정리 (5분)	▶학습내용 정리 ▶형성평가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형성평가를 제시한다. · 형성평가의 정답을 확인하고 적절한 강화와 보충학습을 실시한다.	· 교사와 함께 학습한 내용을 상기한다. · 형성평가를 해결한다. · 자신의 답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틀렸다면 그 이유를 이해한다.

지도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교 사	학 생
정리 (5분)	▶발전학습	·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적 특징을 조사하여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게 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한 나라를 선택하여 그들의 문화적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그린다.
	▶차시예고	· 차시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 차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학습 지도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 문제 수업 단계별로 학습 활동지를 개발하였다. 활동지의 내용은 다문화와 관련된 광고, 드라마, 인터넷 기사, 사례들을 활용하였다.

둘째, 교사는 학습을 조직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학습자가 실천적 추론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둠 활동을 통하여 조사, 토의, 발표수업이 되도록 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활동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시켰다.

셋째,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안은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편견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관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실천적 추론 수업 적용 결과

1.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정도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 정도에서는 다문화가족과의 접촉 경험 여부, 다문화교육 시작시기,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 및 경험 경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적절한 교과목, 기술·가정 교과 내 다문화 교육내용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 방법, 다문화 이해를 위한 수업량의 적절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Ⅳ-2>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다문화가족 접촉경험 / 성별	주변의 다문화 가족과의 접촉경험	
	있다	없다
	빈도(%)	빈도(%)
여자	45(32.6)	93(67.4)
남자	9(14.8)	52(85.2)
합계	54(27.1)	145(72.9)

위와 같이 주변의 다문화 가족과의 접촉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여자, 남자 모두 접촉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67.4%, 85.2%로 높게 나타났다.

오진숙(2009)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자녀와의 접촉 여부에서 ‘있다’는 응답이 여자는 52.1%, 남자는 47.9% 이고 ‘없다’라는 응답이 여자는 46.9%, 남자는 53.1%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와 비교 결과 중학생 여자, 남자 모두 ‘없다’라는 응답이 ‘있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생 여자는 ‘있다’라는 응답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남자는 ‘없다’가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것으로 보아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족 자녀와 조금 더 많은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 이유를 유추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많은 수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초등학생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Ⅳ-3>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

이해도 / 성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여자	6(4.3)	5(3.5)	23(16.3)	37(26.2)	70(49.6)
남자	3(4.8)	2(3.2)	15(23.8)	16(25.4)	27(42.9)
합계	9(4.4)	7(3.4)	38(18.6)	53(26.0)	97(47.5)
exact test=1.964 , p=0.754					

위와 같이 다문화교육으로 인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도움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자, 남자 모두 도움 정도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9.6%, 42.9%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약간 그렇다'라는 응답은 여자(26.2%), 남자(25.4)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여자(16.3%), 남자(23.8%) 순으로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이(2011)는 수학과 내용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한 결과 '다문화 이해도' 영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에 60.6%, '조금 도움이 되었다'에 30.3%가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도움 정도에 있어 '매우 그렇다(47.5%)'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각 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Ⅳ-4> 다문화교육의 시작 시기

시작시기 / 성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여자	53(37.6)	53(37.6)	31(22.0)	1(0.7)	3(2.1)
남자	14(22.6)	35(56.5)	11(17.7)	0(0.0)	2(3.2)
합계	67(33.0)	88(43.3)	42(20.7)	1(0.5)	5(2.5)
exact test=7.595 , p=0.077					

위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시작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여자는 '유치원', '초등학교'라는 응답이 각각37.6%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는 '초등학교' 응답이 56.5%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자, 남자 모두 다문화교육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정연희(2008)의 우리나라 다문화이해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유치원 때의 다문화이해교육 경험은 유아기 성장에 도움을 주어 사회적 구성요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초등학교 시기나 나아가서 청소년기의 타문화 이해교육은 절대적인 배척이나 인종과 같은 편견을 통해 길들여진 타문화 수용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정화작용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이해를 통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교육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두 연구 모두 다문화교육은 어려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5>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 및 경험 경로

경험 유무 및 경로 / 성별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		다문화교육 경험 경로				
	있다	없다	학교선생님	부모님	대중매체	기관 및 단체	기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여자	105(74.5)	36(25.5)	76(72.4)	4(3.8)	23(21.9)	1(1.0)	1(1.0)
남자	45(71.4)	18(28.6)	30(66.7)	2(4.4)	8(17.8)	4(8.9)	1(2.2)
합계	150(73.5)	54(26.5)	106(70.7)	6(4.0)	31(20.7)	5(3.3)	2(1.3)
χ^2=0.207, p=0.649							

위와 같이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를 조사해 본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남자 모두 다문화 이해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74.5%, 71.4%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교육 경험 경로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 남자 모두 '학교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각각 72.4%,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대중매체'가 각각 여자 21.9%, 남자 20.7%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 다문화교육에 적절한 교과목

성별 / 적절한 교과목	여자	남자	합계
	빈도(%)	빈도(%)	빈도(%)
국어	6(4.7)	2(3.8)	8(4.4)
수학	1(0.8)	1(1.9)	2(1.1)
영어	4(3.1)	1(1.9)	5(2.7)
과학	0(0.0)	0(0.0)	0(0.0)
사회	21(16.3)	6(11.3)	27(14.8)
기술 · 가정	70(54.3)	29(54.7)	99(54.4)
예체능	4(3.1)	7(13.2)	11(6.0)
도덕	23(17.8)	7(13.2)	30(16.5)

다문화교육에 대한 적절한 교과목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 남자 모두 '기술·가정' 과목이 각각 54.3%, 54.7%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도덕, 사회, 예체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54.4%인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술 · 가정에서 다문화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Ⅳ-7> 기술 · 가정 교과 내 다문화 교육내용의 필요성

필요성 및 이유 \ 성별		여자	남자	합계
		빈도(%)	빈도(%)	빈도(%)
필요성	꼭 필요하다	84(59.6)	42(66.7)	126(61.8)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47(33.3)	12(19.0)	59(28.9)
	필요하지 않다	10(7.1)	9(14.3)	19(9.3)
		χ^2=5.847 , p=0.054		
필요한 이유	실천적인 교과이기에	45(53.6)	20(47.6)	65(51.6)
	이론이 중심이 되는 교과이기에	10(11.9)	5(11.9)	15(11.9)
	태도를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교과이기에	27(32.1)	17(40.5)	44(34.9)
	기타	2(2.4)	0(0.0)	2(1.6)
필요하지 않는 이유	배울 이유가 딱히 없으므로	3(33.3)	3(33.3)	6(33.3)
	다른 교과가 더 적합하다	3(33.3)	3(33.3)	6(33.3)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11.1)	1(11.1)	2(11.1)
	기타	2(11.1)	2(11.1)	4(22.2)

위와 같이 기술 · 가정 교과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남자 모두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59.6%, 66.7%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 · 가정 교과내 다문화 교육내용의 필요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 남자 모두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실천적인 교과이기에'라는 응답이 각각 53.6%, 47.6%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 32.1%, 남자 40.5%로 '다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교과이기에'가 뒤를 이었다.

강정이(2011)는 수학과 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평가 항목 중 '꼭 필요하다'에 51.6%, '필요하다'에 42.4%가 응답하여 수학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술 · 가정 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이 '꼭 필요

하다'(61.8%)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각각의 과목에서 다문화교육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술·가정 교과 내 다문화 교육내용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자, 남자 모두 '배울 이유가 딱히 없으므로', '다른 교과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므로'라는 응답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정확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표 Ⅳ-8> 기술 · 가정 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방법

성별 \ 수업방법	선생님의 강의식 수업	매체를 이용한 수업	모둠학습	사례에 따른 문제해결 수업	기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여자	1(0.7)	64(45.4)	37(26.2)	37(26.2)	2(1.4)
남자	4(6.3)	27(42.9)	16(25.4)	12(19.0)	4(6.3)
합계	5(2.5)	91(44.6)	53(26.0)	49(24.0)	6(2.9)
	exact test=9.299* , p=0.042				

* p<0.05

기술 · 가정에서의 다문화 수업의 적절한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45.4%로 동영상/사진 등의 매체를 이용한 수업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뒤로 모둠학습과 선생님이 사례를 제시하고 직접 해결해보는 수업은 26.2%로 똑같은 분포율을 보였다. 그 뒤에는 기타, 선생님의 설명으로만 이루어진 수업의 순이었다. 남학생은 42.9%로 동영상/사진 등의 매체를 이용한 수업이 가장 높은 분포율을 나타냈다. 모둠학습이 26%, 선생님이 사례를 제시하고 직접 해결해보는 수업은 24%, 기타 2.9%, 선생님의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수업 2.5%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동영상/사진 등의 매체를 이용한 수업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Ⅳ-9> 다문화이해를 위한 수업양의 적절성

수업량 / 성별	잘 모르겠다	부족하다	적절한 편이다	충분하다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여자	20(14.3)	19(13.6)	72(51.4)	29(20.7)
남자	15(24.2)	8(12.9)	29(46.8)	10(16.1)
합계	35(17.3)	27(13.4)	101(50.0)	39(19.3)
χ^2=3.103 , p=0.376				

위와 같이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양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자, 남자 모두 ‘이해하기에 적절한 편이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51.4%, 46.8%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라는 응답이 20.7%로 그 뒤를 이었고, 남자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이해하기 적절한 편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 그 뒤를 잇는 응답은 남녀별로 조금 차이를 보였다.

2. 실천적 추론 수업 적용 후 사전 · 사후 효과

실천적 추론 수업법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후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의 마음에 대하여 사전 · 사후 검사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표 Ⅳ-10>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의 하위요인 사전 · 사후검사 차이 비교

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태도	3.18	0.778	3.58	0.810	-5.357***	0.000
	다문화에 대한 관심	2.64	0.873	3.03	0.881	-4.503***	0.000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	3.90	0.834	4.00	0.861	-1.212	0.227
호감도	내적이미지	2.59	0.889	2.40	0.823	2.196*	0.029
	외적이미지	3.30	0.792	3.31	0.856	-0.076	0.939
배려	배려	3.12	0.719	3.67	0.595	-9.285***	0.000

* $p<0.05$, *** $p<0.001$

위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 호감도, 배려 하위요인의 사전 · 사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태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 내적 이미지, 배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사전 검사와 비교 결과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도 사후 검사의 평균이 사전 검사와 비교하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수업 시행 후에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적 이미지에서는 사후 검사의 평균이 사전 검사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강정이(2011)의 연구에서 수학과 다문화교육 학습 자료를 적용한 후 다문화 인식에 대한 평균이 사전보다 모든 문항에 대하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실천적 추론 수업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한 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사후 검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수업이 진행된 후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이 더 높아졌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가 다문화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현숙(2003)은 디자인 수업을 통한 다문화이해수업 후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학생들의 비율에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0%,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이는 86%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천적 추론 수업 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 배려에서도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두 연구 모두 다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여 다문화가정이 오랫동안 소외되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는 우리를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인종,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차 개정 기술 · 가정 1학년 교과서 내용 중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실천적 추론 수업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후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와 배려의식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배려의 태도를 기르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노재윤(2011)의 국어 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 개정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는 2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다문화적인 요소를 추출하면 전체 제재의 0.8%에 해당하는 15개의 제재만 있어서 다문화를 이해시키기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2007 개정교육과정의 국어, 기술 · 가정 교과서 모두 다문화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어 교과서 내 학습 목표와 글의 소재들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제재를 추출하여 다문화적 내용 요소-사회정의, 정체성, 다양성 · 다원성-를 주제로 한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직접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났으며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다문화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와 비교 결과 교수-학습법은 같지 않으나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진 후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은 같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주광역시 W중학생 1학년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 검사는 수업 전 성별,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 다문화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수업 기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호감도, 배려의식 정도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았

다. 그리고 실천적 추론 수업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한 후 사후 검사는 다문화에 대한 인지 정도, 수업의 이해 정도, 다문화교육 시작 시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호감도 변화 정도, 배려 의식의 변화 정도를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회수된 설문지는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되는 것을 제외한 사전 검사 204부, 사후 검사 204부 총 408부를 SPSS 18.0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과의 접촉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72.9%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사 지역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수업 전후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검사와 비교하면 수업 시행 후 다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실천적 추론 수업법이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73.5%)'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교육 경험 경로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70.7%)'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대중매체(20.7%), 부모님(4.0%), 기관 및 단체(3.3%)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때 다문화에 대해 많은 학생이 수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기술 · 가정 과목(54.4%)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덕(16.5%), 사회(14.8%), 예체능(6.0%), 국어(4.4%), 영어(2.7%), 수학(1.1%), 과학(0.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기술 · 가정 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수업을 진행한 후에도 학생들은 기술 · 가정 교과 내에 다문화교육이 '꼭 필요하다(61.8%)'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실천적인 교과이기에(51.6%)'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가장 적합하다(34.9%)'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다문화교육의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43.3%)'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유치원(33.0%), 중학교(20.7%), 대학교(2.5%), 고등학교(0.5%)의 순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다문화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0.5%)'라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을 위한 적절한 수업 방법을 조사한 결과 '동영상/사진 등의 매체를 이용한 수업(44.6%)'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모둠학습(26.0%)', '교사가 사례를 제시하고 직접 해결해보는 수업(24.0%)' 순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실천적 추론 수업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영상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모둠학습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 사례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문화교육으로 적절한 교수-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기술 · 가정 교과의 여러 단원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천적 추론 수업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둠학습을 한 후 다문화에 대한 이해정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도움이 되었다(47.5%)'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에 적절한 편(50.0%)'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편(19.3%)'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섯째,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호감도,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려에 대한 하위 요인의 수업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태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요인 모두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천적 추론 수업을 적용한 다문화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과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호감도 중 외적 이미지는 사전, 사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호감도 중 내적 이미지는 사후 검사의 평균이 사전 검사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한 번의 다문화교육으로는 학생들의 호감도를 단시간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려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후 검사의 평균이 사전 검사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수업 후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여겨진다.

중학교 1학년 기술 · 가정 교과서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은 미흡했다. 그래서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내용을 실천적 추론 교수-학습에 맞춰 재구성한 후 모둠학습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은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의 친구들과 문화적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 · 가정 교과에서 다양한 다문화교육 수업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제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려의 태도와 다문화 이해 정도를 알아보고자 실천적 추론 수업법을 적용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 전, 후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정도를 알아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광주광역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추출방법에 한계점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처럼 수업의 실제적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수업이 진행된 후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의식이 향상되었고 다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을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수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며, 다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단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 가정 전 단원에서 다문화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다문화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 제7차 교육과정 기술 · 가정 1학년 11종 교과서 중 3종의 교과서에만 다문화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너무 협소한 범위의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 이후에 다른 학년의 기술 · 가정 교과서 내 다문화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단순히 이론 위주의 수업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수업에서 적용한 실천적 추론 수업이 기술 · 가정 교과의 다문화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한 많은 자료와 교수-학습법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강정이(2011).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수학과 학습 자료의 개발과 적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김복용(1997). 배려윤리의 교육적 의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김상돈(2010).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김성희(2010).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교육에 대한 인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나현숙(2003). 다문화이해를 위한 미술 수업 방안 연구 : 디지인 수업을 통한 다문화이해.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남윤주(2009).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남정희(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논문

노석봉(2010). 중등학교 예비교사들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노재윤(20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 연구 :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분석에 입각하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민태옥(2004). 배려 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피배척 아동의 자기 존중감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박경민(2009). 다문화가족자녀의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 논문

박선미(2011). 성인남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 논문

박수경(2009). 고등학교 기술 · 가정 '부모됨' 영역의 교수 · 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실천적 추론 수업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박여울(2010). 다문화교육을 위한 중학교 가정교과수업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서범석(2010).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손병주(2011). 배려윤리 관점에서의 중등 도덕 교과 수업 모형 적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오진숙(2009).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정연희(2008). 우리나라 다문화이해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 논문

조항석(2010). 초등학생의 감사 성향 함양을 위한 감사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최윤영(2007). 유아 교사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학회지>

김서현, 윤영(2011). 고등학교 기술 · 가정 교과서(가정영역)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3, No. 1

김은정(2010). 가정과 교육에서의 개정 교육과정의 과제와 방향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2, No. 2

박미정(2009). 가정과교육에서의 행복과 배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Vol. 2009, No. 1

유태명(2006).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8, No. 4

조영달(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정책.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채정현, 유태명(2007).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가정교과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9, No. 1

<책>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해설Ⅲ
권영출 외(2009). 중학교 기술 · 가정 1. 금성출판사
김선미 외(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박병춘(2002).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울력
양정열 외(2011). 중학교 기술 · 가정 1. 원교재사
유태명 외(2004). 생각을 넓히는 실천적 가정과 수업Ⅰ. 신광출판사
윤인경 외(2009). 중학교 기술 · 가정 1. 교학사
윤인진 외(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아담북스
원진숙 외(2010).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사회평론

단원명	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03)나는 친구가 좋아 - 우리 모두 친구
실천적 문제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열기]

※ 원으로 만들어 한명씩 빠져나오는 활동 실시!

1. 혼자만 원 안에 있을 때 느낌은 어떠했는가?

2. 원 안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짝원들의 방해로 나오지 못했을 때 느낌은 어떠했는가?

※ 신문지를 접어가며 마지막까지 버티는 활동 실시!

1. 게임을 하면서 친구가 나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꼈는가? 느꼈다면 어떤 행동에서 느꼈는가?

2. 배려해 준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였는가?

3.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인식 및 배경 이해]

※ 제시된 광고를 보고 배려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광고를 보며 배려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생각하는 배려의 정의를 써보자!)

2. 자신이 경험한 배려의 종류를 적어보자.

※ 제시된 동영상을 보고 그 속에 내재된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동영상을 보고 아리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보자.

2. 윤서는 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

3. 위와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대안의 탐색]

1. 우리 주변에 숨겨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 찾아내기 (2가지 이상)

대중매체	
자기주변 경험	

2. 위에서 찾아낸 고정관념의 사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다문화가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사례	
방안	

3.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자신의 생각 중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적어 보자.

[생각 넓히기]

▶ 다음 대본을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내용으로 다시 써보자.

엄마 : 우리 딸 오늘도 더운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딸 : 네, 엄마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엄마 : 뭐가 이상한데?
딸 : 얼굴색도 까맣고 우리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짝꿍이 그러는데 그 아이 엄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래요.
엄마 : 그래? 아마도 다문화가정인가 보구나. 아마 엄마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일거야.
요즘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시집을 오더구나.
딸 : 그래요? 어쩐지……,그 애한테서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말도 잘 안하고……,
엄마 : 그래? 그럼 그 애랑 놀지 마렴. 넌 다른 친구도 많잖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아. 괜히 친하게 지냈다가 너도 왕따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
딸 :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나리랑 은아한테도 전학생이랑 같이 놀지 말자고 말해야겠어요.
엄마 : 그러렴.

▶ 바꾼 대본

▶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2가지 이상 써보자.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 · 가정교육과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자료입니다.

본 설문지는 중학생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가정의 이해 및 배려의식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의 답은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으며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논문을 작성하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공개되는 일이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귀하신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 전공
지도교수 : 양 남 희
연 구 자 : 이 세 연

◎ 다음은 학생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2. 연령
① 13세 ② 14세 ③ 15세 ④ 16세 이상

3. 학교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4. 사는 지역
① 농촌 ② 도시

◎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이해 교육을 위한 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전

[다문화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주변의 친척, 이웃, 친구 등 다문화 가족과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다문화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2-1문항으로) ② 없다.

2-1. 다문화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습니까?

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② 부모님

③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등)

④ 기관 및 단체

⑤ 기타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의 기술]

1.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교과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국어 ② 수학 ③ 영어 ④ 과학 ⑤ 사회

⑥기술·가정 ⑦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⑧ 도덕

2. 만약 기술·가정에서 다문화교육을 한다면 어떤 수업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선생님의 설명으로만 이루어진 수업

② 동영상, 사진 등의 매체를 이용한 수업

③ 모둠학습

④ 선생님이 사례를 제시하고 직접 해결해보는 수업

⑤ 기타

※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태도	1. 한국에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한국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3. 나와 다른 인종, 민족일지라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4.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5. 나는 외국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다.					
	6. 나는 다문화자녀를 친구로 사귈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	7. 평소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이 많다.					
	8.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교육을 받고 싶다.					
	9. 나는 TV, 신문 등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정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본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책	10.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호감도 >

* 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보면 (　　)는 느낌이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내적 이미지	1. 친절하다.					
	2. 평화적이다.					
	3. 부지런하다					
외적 이미지	4. 위생적이다.					
	5. 지위가 높다.					
	6. 부자이다.					

※ 다음은 배려의 마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1. 배려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					
2. 나는 평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이다.					
3. 배려 대상은 가까운 사람, 모르는 사람 구별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를 많이 받는 편이다.					
6. 배려의 마음은 무의식중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7.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 후

1. 귀하에게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사의 설명이 부족해서
② 용어가 어려워서
③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④ 지루한 내용이라서

2. 귀하는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현재의 수업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잘 모르겠다.
②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③ 이해하기에 적절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④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 다문화교육 내용이 기술·가정 교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꼭 필요하다. (3-1문항으로)
②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③ 필요하지 않다. (3-2문항으로)

3-1. 꼭 필요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① 다른 교과보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실생활에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실천적인 교과이므로

② 다른 교과보다 다문화 개념에 대한 이론이 중심이 되는 교과이므로

③ 다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교과이므로

④ 기타

3-2. 필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① 배울 이유가 딱히 없으므로

② 다른 교과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므로

③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④ 기타

4. 다문화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태도	1. 한국에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한국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3. 나와 다른 인종, 민족일지라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4.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5. 나는 외국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다.					
	6. 나는 다문화자녀를 친구로 사귈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	7. 평소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이 많다.					
	8.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교육을 받고 싶다.					
	9. 나는 TV, 신문 등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정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본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	10.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호감도>

* 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보면 (　　)는 느낌이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내적 이미지	1. 친절하다.					
	2. 평화적이다.					
	3. 부지런하다					
외적 이미지	4. 위생적이다.					
	5. 지위가 높다.					
	6. 부자이다.					

※ 다음은 배려의 마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1. 배려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					
2. 나는 평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이다.					
3. 배려 대상은 가까운 사람, 모르는 사람 구별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를 많이 받는 편이다.					
6. 배려의 마음은 무의식중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7.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